

하반기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사랑의 보일러 지부(지부장 이영수)는 10월 27일 사랑의 보일러 교실 학생 및 졸업생과 성동구 자원봉사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진천면 정흥구 씨의 농가 인삼 밭 1500평의 잡초를 제거하는 2006년 하반기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영수 지부장은 봉사활동에 앞서 “이번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은 도시와 농촌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하나의 행사로써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고 여러 회원들은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의미 있는 구슬땀을 흘려보자.”라며 “모두가 어렸을적 과거의 농촌 생활을 음미해보는 뜻 깊은 자리 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사 활동을 펼친 졸업생 및 여러 회원들은 소감을 통해 “찌든 도시 생활에서 탈피해 대자연을 보면서 마



음속이 후련해짐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오늘 같은 행사에 적극 참여해 농촌의 일손도 돕고 자기스스로의 반성의 시간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뜻깊은 자리였다.